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9호
2016. 6. 14
여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 ~ 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국민대회 성대히 개최 “홍범도함” 승조원 참석, 홍범도 장군 정신 계승 다짐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6월 7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종로구 신문로 2가 소재)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박유철 광복회장을 대리하여 나중화 부회장, 박성국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직무대리와 문태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하여 보훈단체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회장 홍성종)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옥 사무국장의 사회로 먼저 문준진 사무총장의 홍범도 장군 연보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이종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승려나 농민들을 위시한 일반 민중이 봉기하여 문약한 관(官)을 도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의용(義勇)의 정신이 독립투쟁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그 대표적인 표상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이사장은 홍범도 장군의 탁월한 전술 운용능력을 설명하고, 이를 교훈삼아 국군의 전투력 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기념사에 이어 문태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치사와 박유

철 광복회장과 박성국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직무대리의 축사가 있었고, 강정호 홍범도함 함장이 홍범도 장군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였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이 없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는 몹시 빈약하고, 한민족의 패기와 의기는 취약하게 보였을 것”이라 지적하고, 3대첩이 있었기에 부끄러운 식민지시대를 씻을 수 있었다. 또한 당당한 상무정신을 이으면서 어떠한 외세의 침략에도 맞설 수 있는 민족적 결기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지회 합창단이 “날으는 홍범도 장군가”, “독립군가”를 불러 당시의 감격을 재연하였고, 참석자 전원이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분단 조국의 통일로 이어가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홍성종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 회장의 만세 삼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지난 4월 5일 대한민국해군에서 진수하여 “홍범도함”으로 명명한 잠수함 승조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을 배우고, 탁월한 전략전술을 계승하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이종찬 이사장 기념사

“나라가 위급할 때 일반 민중이 봉기한 의용 정신이 독립투쟁 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던 대표적 표상이 홍범도 장군”



오늘 우리는 홍범도 장군께서 이끈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위대하게 승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20년 6월 7일 옥일승천의 기세로 만주를 침범했던 일본정규군은 호기있게 봉오동 골짜기로 우리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이를 대항하여 수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도저히 대적하기 어려운 우리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치밀한 전략과 독립군의 높은 사기, 그리고 유리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무찌르고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청산리 전투와 더불어 우리의 무장 독립운동사에서 양대 전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하여 우리는 열세한 전력을 갖고도 막강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의 동북부지역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여건에서 봉오동 전승을 이끈 홍범도 장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문관우위와 무관천시의 왜곡된 양반사상이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승려나 농민들을 위시한 일반 민중이 봉기하여 문약한 관(官)을 도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의용(義勇)의 정신이 독립투쟁 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던 대표적 표상이 홍범도 장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은 사관학교를 나와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또 양반가문에서 백성들을 부리고 지

도했던 그런 높은 신분에 있던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홍 장군은 독립군을 이끌면서 최진동 부대와 합쳐 대한 독립군으로 재편성할 때 지휘권을 놓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최진동 부대의 연대장으로 흔쾌하게 수락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는 충무공 이순신의 백의종군의 정신과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간성이 부하들에게 영향을 주어 열세한 부대가 불패의 신념과 높은 사기를 갖게 되어 봉오동에서 일본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셋째, 홍범도 장군은 탁월한 전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맹수를 잡았던 유능한 포수였습니다. 그분은 적군이 나타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하들에게 “호랑이가 사격거리내로 접근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결정적일 때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침착성과 일발필살의 기량은 전승을 이루는 기초인 것입니다.

이처럼 봉오동 대첩은 우리의 전투능력에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우리 국군의 군 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해군이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함명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보냈습니다. 비록 지상에서의 전투와 해상에서 전투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근본은 같다고 봅니다. 확고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적을 기다려 일발필살의 정확한 능력을 갖춘다면 앞으로 홍범도함은 우리 해군의 가장 우수한 잠수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을 맞아 이역에서 영면하고 계신 홍범도 장군의 영전에 삼가 추모의 예를 올리면서 죄송한 마음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해군 장병 여러분들의 무운을 바라는 바입니다.

내빈 여러분의 건안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념사업회와 홍범도함 간에 자매결연 협약 체결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해군 홍범도함과 지난 6월 7일, 우당기념관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차 상경한 함장 강정호 대령을 비롯한 승조원 29명을 우당기념관으로 초청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문준진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하여 이종찬 이사장과 강정호 함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다.

협약서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며 홍범도함은 기념사업회 회원들에게 이해증진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념사업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해군과 홍범도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호증진으로 위하여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종찬 이사장은 협약서 교환 후 환영사를 통하여 “홍범도함은 홍범도 장군의 일발필살의 강인한 정신을 계승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을 격침하는 최정예 부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기념관 방문과 협약 체결을 환영하였다.

강정호 함장은 “자매결연으로 홍범도기념사업회와 홍범도함은 형제자매가 되었으므로 어떠한 여건에도 상호 신뢰와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답사하였다.

이어서 홍범도함에서는 기념사업회에 잠수함 모형과

홍범도함 진수식 사진을 선물하였고,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액자 3종과 김진중 선생의 홍범도함 진수 축시 액자를 선물하였다.

협약식이 끝난 후 이종찬 이사장은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이 있었으며, 이 강연에서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우리 군의 호국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약식이 끝난 후 기념사업회에서는 승조원 일동을 토속촌삼계탕(종로구 사직동 소재)으로 초청하여 장병들에게 여름 최고 보양식인 삼계탕으로 만찬을 베풀었다.

강정호 함장, 봉오동 전승기념식에서 “홍범도 장군께 드리는 편지” 낭독

이에 앞서 강정호 함장은 봉오동전투 제96주년 전승 기념 국민대회에서 “홍범도 장군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였다.

이 편지에서 강 함장은 “장군께서 만주에서 일본군을 모두 섬멸하고, 연전연승하신 것처럼 홍범도함 또한 ‘최정예 필승 잠수함’으로 거듭나 어떠한 적의 도발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도록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실력을 겸비하겠습니다.”는 결의를 밝혔다.



홍범도함 부대 창설식 및 진수식 이모저모



홍범도함 진수식에 기념사업회, 종친회 임원 참석

지난 4월 5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특수선 사업부에서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진수식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과 기념사업회 홍성덕 부이사장,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에서 홍성중 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홍범도함은 배수량 1,800톤급 잠수함으로 길이 65m, 폭 6.3m, 수중 최대시속 20노트(37km)로 기동하며 대함전, 대잠수함전과 공격기뢰 부설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북한의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4월 1일, 진해 부대 창설식에 참석한 해군간부와 임원들〉



〈홍범도함 부대 창설식에 참석한 사업회·종친회 임원들〉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위풍당당한 홍범도함의 모습〉



〈진수식에 참석한 내빈들의 모습〉



〈진수식 축하 연회에 참석한 기념사업회 임원들〉



〈축하 연회에서 건배사를 하는 홍성덕 부이사장〉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행사 및 자매결연 협약식 이모저모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국민대회 정면 모습〉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국민대회 후면 모습〉



〈식전행사에서 격동적으로 공연하는 사물놀이패〉



〈“날으는 홍범도”를 합창하는 양지회 합창단원〉



〈행사에 참석한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 회원들〉



〈기념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홍범도합 승조원들〉



〈홍범도기념사업회와 홍범도합 간에 자매결연 협약식〉



〈홍범도합 승조원들에게 안보강연을 하는 이종찬 이사장〉

봉오동대첩과 홍범도 장군 특강



김 삼 웅(전 독립기념관장)

“3·1혁명이후 크게 양양된 독립군의 사기와 홍범도 장군의 탁월한 전략 전술로 대첩을...”

홍범도는 일본군이 스스로 “날으는 장군(飛將軍)”이라 부를 정도로 신출귀몰한 유격전술로 일본군을 격파하여 명성을 날렸다. 당시 평안도 지방에서는 “축지법을 구사하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전설’이 나돌 만큼 민중의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일제의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거부하면서 최초로 산포수의 병부대를 조직하여 후치령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고문으로 부인을 잃었고, 장남은 전사하였다. 그러나 조선독립은 무장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독립군의 모체인 포수단을 창설하는 등 독립운동 전 과정을 통해 무장투쟁으로 일관한 독립운동가가 홍범도 장군이다.

의병전쟁과 독립투쟁에 몸을 던진 사람들은 대부분 왕조나 사회로부터 혜택은 커녕 차별과 수탈을 강요당했던 계층이었다. 우당 이회영일가처럼 삼한갑족의 기득권층이 없었던바 아니지만, 이들은 지극히 예외적이었을 뿐이다.

홍범도 장군은 자신도 머슴이었지만 아버지도 머슴이었다. 국가로부터 지원은 고사하고 태생과 성장과정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누대를 두고 특권을 누려온 자들이 거침없이 조국을 배신할 때, 그는 누구의 지시나 부름도 없이 스스로 의병이 되고 독립군이 되었다.

한민족은 일제의 야수적인 총칼 아래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의병전쟁과 의열투쟁을 전개하고, 해외에서는 이와 함께 독립전쟁을 감행하여 왜적과 치열하게 싸웠다. 식민지시대에 가장 통쾌하게 왜군과 싸워 승리를 쟁취한 것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그리고 대전

자령전투이다. 항일독립전쟁의 3대첩이다.

일제강점기에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대첩 등 무장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는 몹시 빈약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패기와 의기는 그만큼 취약하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3대첩이 있었기에 부끄러운 식민지시대를 씻을 수 있고, 당당한 민족의 상무정신을 이으면서 향후 어떤 외적의 침략에도 맞설 수 있는 국민적·민족적 결기를 다지게 되었다.

3대첩은 국치를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된 의병전쟁의 결실이고, 이후 항일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의 발화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향후 대일전쟁의 정신적, 전략적 교훈으로 나타났다.

봉오동전투는 홍범도의 지휘 아래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소속의 독립군과 안무의 국민회군 그리고 자신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하여 대규모 독립군 부대를 편성하고(대한북로독군부), 신민단의 소부대들까지 참전하여 봉오동 골짜기에서 현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시킨 대첩이었다.

압도적인 일본군의 병력과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미년 3·1혁명 이후 크게 양양된 독립군의 사기와 홍범도 장군 등 지휘관들의 지리적 이점을 적절하게 활용한 탁월한 전략전술 때문이었다. 봉오동 전투는 4개월 뒤 청산리 대첩을 가져오게 하여, 독립군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 조국광복을 2년 앞두고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하여 아직도 고국으로 유해를 봉환하지 못한 채 그곳에 잠들고 계신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항일투쟁의 공적으로 권총 등을 선물받은 것을 두고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자로 곡해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16년 4월 5일 대한민국 해군이 일곱 번째 214급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홍범도함’으로 명명하여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된 것은 경하할 일이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공원묘소에 묻힌 장군의 혼령께서 크게 반가워하실 것이다. 이 참에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소련 작가, 김세일의 역사기록 소설 “홍범도” 소개



김세일의 역사기록 소설 “홍범도”는 독립운동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전설적인 독립운동사와 일대기를 최초로 소설화한 작품이다. 역사기록소설이라 다소 픽션이 있긴 하나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다. 홍범도가 직접 쓴 「홍범도 일지」와 이인섭의 기록 등을 바탕으로 모스크바 거주 고려인 작가 김세일(김 세르게이 표도르비치)이 5년 동안 집필하여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레닌기치』에 ‘소설 홍범도’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 이후부터 고송무(1947~1993)에 의해 소개되었다.

전 5권 9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1권에서는 조선왕조에서 최초로 민란을 주도한 홍경래(1780~1812)가 여천의 증조부와 그리 멀지않은 친척으로 평안도 룡강 곁에서 함께 살았고 농민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홍씨 가문이 화를 당해 평양으로 이주, 장사를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의 밭을 소작하며 살았다.

제네럴서먼호(1866)가 대동강에 침입하여 평양으로 올라올 때 여천 조부는 애국심에 불타 민병대 지원병으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여천 어머니는 여천을 낳은지 7일 만에 해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여천의 아명은 ‘범둥’으로 ‘호랑이 같은 애’, ‘장수답게 생긴 애’라는 뜻이었다. 그 후 범도로 개명하였다. 아버지는 9세에 사망하여 머슴 생활을 하며 고난의 길을 걸었다.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으로 15세부터 동네 청년들과의 석전과 씨름에서 늘 일등을 하여 “홍 장군”이란 별명을 가졌다.

2권에는 군자금을 모집하고 의병대 연합총회를 열었으나 의병대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 양순이와의 우정과 애정을 그리고 동지애를 그렸다. 홍범도 의병대의 위기, 우덕순과 안중근 부대, 여걸 “금돌”이의 활약, 이범윤의 배신과 안중근의 거

사, 조국의 운명과 의병대의 운명, 그리고 백두산 속으로 이동하는 애기를 기술하였다.

3권에서는 봉오골 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의 승전, 김좌진 부대와의 연합을 다루었다. 일본의 가노 부대가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부대를 포위하자 김좌진 부대는 바빠 도망치고, 홍범도 부대가 혼자서 싸워 전투를 승리로 끝내고 서둘러 깊은 산간으로 들어갔다.

군정서 지도자들의 성분을 보면 서일 총재와 김좌진 사령관은 양반 출신으로 전투보다는 명예와 권력, 지위에만 관심이 많아 청산리전투에서 끝까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쳐버린 것이다. 군정서 부대원들 중에는 홍범도 장군이 김좌진 장군과 달리 신출귀몰하고, 풍채가 좋고, 겸손하여 “뛰는 김좌진, 나르는 홍범도”라고 평가했다.

4권에는 니콜라옌스크 사변과 고려공산당의 창당과 음모, 싸투의용군과의 알력, 이르쿠츠크로 간 홍범도, 자유시 사변, 전투에서 장남 용환의 전사, 레닌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그렸다. 아들 장례식에 리청천이 조문하자 조문인사를 받고 나서 다시는 한 사람도 조문하러 오지 말도록 지시했다. 자유시 사변 때 100여 명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 아들 죽음은 거기 비하면 아무런 일도 아니요. 리청천은 홍범도가 하는 말을 듣고 감개무량하면서 홍범도의 마음이 대단히 너그럽다고 탄복해 마지않았다.

5권에서는 작가가 “뒤글”을 통해 김좌진과 리청천의 관계가 처음에는 친한 사이였고, 김좌진은 문무를 겸비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김좌진은 봉건주의의 전형적인 인물이고, 리청천은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인물로 주의 사상이 달라서 서로 질시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범도의 탁월한 전술적 재능을 러시아의 저명한 장수 프룬제에 비유했다. 홍범도의 호 여천(汝千)은 27세에 철원 보개산에서 유인석과 함께 의병활동을 할 때 유인석이 지어주었다. 유인석의 자(字)는 여성(汝聖)이다.

김세일은 고려인 출신 소련 작가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레닌기치’에 연재할 때 북한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 당시 쓰던 어휘로 풀어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 했다. 부록에서는 소설 홍범도의 중요 약력과 일부 독립단 지도자들의 마지막 생애와 운명을 기술하였다.

이 소설은 홍범도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이지만 품질되어 빠른 재판을 고대한다. (정리 홍성덕)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이종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은 5월 25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개최된 조소앙 선생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연합국의 도움으로 1948년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헌법정신과 재헌국회의 결의에 따라 3·1운동이후 상해에서 출범한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우재 고문



이우재 윤봉길의사유헌회 회장은 4월 29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의사기념관 사당에서 상해의거 제84주년 다례행사를 개최하였고, 30일에는 제7회 윤봉길 평화의 길 걷기행사를 주관하였다.

○김유진 고문



김유진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은 5월 27일 독도 방문단(단장 김일운)의 일원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의무성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 단호한 대처를 결의하는”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홍헌일 감사



홍헌일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 원장은 6월 10일 역사문화탐방 모임인 삼가회 회원들과 더불어 강화도 일대 역사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안보상의 위상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김희일 이사



김희일 서울 홍산문화중국도자박물관 관장은 7월 초순부터 3개월 동안 인천 중구청의 후원으로 중구 향동에 있는 한중문화원에서 중국 황실 도자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영철 이사



이영철 4·19포럼 회장은 6월 11일 회원들과 더불어 여주 고달사지와 영능 등 역사유적지를 답사했다. 포럼에서는 회원들의 역사

의식과 4·19혁명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역사유적지를 탐방한다.

○홍성종 이사



홍성종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은 6월 5일 선조들의 행적지를 탐방하는 행사로 중중회 임원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 남양사를 참배하였고, 6월 12일에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시조공원 조경관리공사를 시공한다.

○황원섭 이사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6월 4일자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신흥무관학교 개교 105주년 기념특집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원하였다. 신문을 통해 “경희대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임에도 불구하고 신흥대학교를 경희대학교로 개명하면서 학교역사에서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운동과 민족사적 전통성을 말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환길 자문위원



김환길 서울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 회장(가락고 교장)은 6월 23일 오후 6시, 우당기념관에서 이준식 연세대 교수를 초청하여 “식민지 근대화론의 실체를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2/4분기 강좌를 개최한다.

○문준진 사무총장



문준진 에디슨이엔씨(주) 회장은 국내 건축 선진화의 새로운 기술인 TILT-UP공법을 도입하여 사업을 확장한다. TILT-UP공법은 직접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를 제작하여 양생 후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장과 창고 건설에 적합한 샌드위치 판넬을 대체할 신공법이다.

○김도경 국장



김도경 한국여성문예원 원장은 6월 17일(금) 오후 6시 중구 명동 라운지 카페에서 청록지 70주년과 박두진 시인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어서 너는 오너라”라는 연극을 공연하고, 이어서 제6회 명동 시낭송 콘서트를 개최한다.